

‘김현 읽기’로 낭만과 사유의 가을밤

목포출신 평론가...34주기 문학축전 작가회의 목포지부 ‘김현 전집 읽기’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4권 독서 10월 5~6일 문장 낭독 등 행사



작가회의 목포지부가 평론가 김현 타계 34주기를 맞아 김현전집 읽기를 진행한다. <작가회의 목포지부>

평론가 김현(1942~1990)은 독창적 비평으로 우리 문학의 비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문학가다. 특히 그는 평론은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관념을 깨고 산문 형식의 글로, 비평의 읽는 맛을 선사했다. 그의 문학적 자장은 현재까지도 후배 문인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목포출신 평론가 김현의 타계 34주기를 맞아 그의 문학전집을 읽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사)한국작가회의 목포지부(지부장 류경·목포지부)가 마련한 ‘김현문학전집, 함께 읽어오’는 ‘제18회 김현문학축전’ (추진위원장 황정산·이광호) 일환으로 진행된다.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4권 책을 읽으며, 독서 행사가 끝나면 오는 10월 5일~6일(일) ‘제 18회 김현문학축전’이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로 2회를 맞은 도서모임은 학생, 시민, 문학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길라잡이로는 황정산 교수(문학평론가) 최기종 시인, 김효은 문학평론가, 고희갑 희곡작가가 참여한다.

문학축전은 목포지부가 주관하며 목포시와 문학과지성사가 후원한다. 문학축전 기념식 행사가 펼쳐지는 목포청년회관, (구)남교소극장은 일제강점기 청년들 항일운동 근거지였으며 박화성 소설가의 단편 ‘혈어진 청년회관’의 배경지로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이다.

올해 문학축전은 해민 박영도 선생의 큰 뜻을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문을 연다. 이어 우천제의 ‘각각의 공터를 찾아서’ 강연이 펼쳐진다.

다음으로 김현 문장 낭독, 10인의 시인들의 시 낭송 등의 행사도 진행된다. 특히 10월 5일 밤에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모던 보이 김현의 평소 루틴이었던 ‘반포치킨’의 술자리를 재현해 낭만과 사유의 가을밤을 채울 계획이다.

이튿날 6일에는 김현이 유년기를 보낸 목포 일대를 둘러보는 시월에 문학여행이 예정돼 있다. 문학여행 일정에는 박화성 소설가의 흔적이 있는 목원동 벽화마을과 극작가 김우진, 차범석 거리 등도 포함돼 있어, 목포출신 작가들의 삶과 문학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기회다.

김현은 서울대 재학시절 자유문학에 ‘나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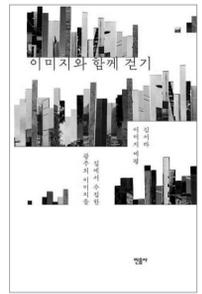
의 시론’이 평론에 당선돼 문단에 나왔으며 김치수, 김병익, 김주연, 김승욱 등과 ‘산문시대’ 등 동인활동을 펼쳤다. 평론을 작품에만 국한하지 않고 작가의 문학적 위치와 연계해 풀어냈다. 열정과 냉철함을 갖춘 분석적 평론으로 사랑을 받았으며 ‘문학과지성사’를 창간했다.

시인인 김경애 김현문학축전 집행위원장은 “이번 김현 전집 읽기와 문학축전은 현대문학사의 평론 부문에서 예술적 심미안으로 평론 세계를 구축했던 김현의 문학적 흔을 기리고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학생과 문학인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문학을 매개로 예술적 심미안과 사유를 공유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내가 사는 광주를 낯설게 바라볼 때

광주 출신 김서라 연구자 ‘이미지와 함께 걷기’ 펴내



지역의 이미지는 고착화돼 있는 경우가 많다. 과거의 영향이라는 자장 속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이미지가 온전히 특정 지역의 현재를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물론 현재 이미지는 과거의 시간이라는 토대 위에서 쌓아올린 장면들의 총합일 것이다.

지역 연구자의 시선으로 광주 이미지를 풀어낸 책이 발간됐다.

광주 출신 김서라 연구자가 펴낸 ‘이미지와 함께 걷기’ (민음사)는 광주의 특정 이미지에 초점을 맞췄다.

김 연구자는 “지역의 연구자이자 비평가로서 내가 사는 광주를 낯설게 바라볼 때 ‘광주’에 입혀진 이미지 그리고 거기서 이탈하는 이미지들이 나타난다”며 “‘광주’를 이탈해 있지만 오랫동안 이곳에 남아 있었던 이미지는 잊히기 직전의 기억과 이름 없는 존재를 그리고 철거가 확정된 공간에도 있었다”고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미지, 지역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여전히 잊히지 않는 장면은 붕괴와 관련된 사고다.

광주 출신으로 광주에서 나온 자란 연구자이기 에 남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을 터다.

“글을 쓰는 동안 도저히 잊히지 않던 이미지가 있다. 붉은 토사와 건물 잔해가 도로로 쏟아져 내린 처참한 풍경. 23층부터 38층까지 한쪽 귀퉁이가 무너져 내린 아파트. 2021년과 2022년에 학동과 화정동에서 일어난 붕괴사고의 이미지다.”

책은 모두 세 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 ‘전남의 이미지들’은 1970년대 광주와 전남

을 포함한 근대적 질서를 재현하는 이미지와 그 질서로부터 이탈한 이미지를 다룬다.

광주의 역사와 풍경을 기록했던 사진가 오종태, 보도사진을 찍고 사진 잡지를 만들기도 했던 강봉규에 대한 글이 수록돼 있다.

2장 ‘광주 2순환도로’에서 저자는 순환도로 이전 교통을 비롯해 순환도로 바깥의 사람들을 다룬다. 순환도로는 단순히 물질적 구조물만이 아닌 일상의 호흡을 ‘전쟁처럼 조직하는 참호의 길’이다. 저자는 “여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숨을 불어넣는 수밖에 없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마지막 3장은 ‘방직공장의 가장자리’로 전남방직과 일신방직과 관련한 이미지들에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어디에나 ‘지역’들이 있다”며 “우리는 그 ‘지역’과 함께 그리고 그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글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이어져 또 다른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서라 연구자는 전남대 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광주의 연구 공동체 ‘광주 모더니즘’에 참여하며 지역 문화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거리로 나온 예술 축제

문예위, 나주·서울서 6회...나주서 28일 노래극

거리로 나온 예술 축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가 오는 10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거리예술축제 ‘예술로 소풍-가을’을 나주혁신도시 및 서울 대학로에서 펼친다. ‘어린이가 예술로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가족 단위 관람객을 겨냥하는 행사다.

오는 28일 오후 1시 나주혁신도시 예술위원회 앞마당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먼저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아과 방정환을 다룬 노래극 ‘뭉 뭉는 여관’을 상연한다.

이어지는 ‘바가&본드’는 극단 즐겨찾기가 선보이는 난버벌코미디(무언극)다. 빠른 전개와 다이내믹한 움직임으로 구성된 마임 퍼포먼스는 관객들도 즉석에서 참여할 수 있다.

어린이날다 사회협동조합이 초등학생 2~6학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지구를 살리는 놀이 ‘전만가지 놀이터’라는 제목으로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회차별 20명 선착순 모집) 부대행사로 (사)놀이하는 사람들의



거리예술축제 ‘예술로 소풍-가을’ 행사 장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놀이가 있는 신나는 토요일’, 좋은어린이극만들기협회의 ‘오감만족 미술체험’을 비롯해 실내체험프로그램 ‘컬러링 엽서 꾸미기와 내 그림 전시하기’ 등이 준비돼 있다.

문예위 예술극장 극장운영팀 황금실 과장은 “시

민들의 다양한 예술 향유를 위해 마련했다”며 “장차 지원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강아지뽕’ 전시 등도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무료 참가(우천 시 나주 예술위 청사 안에서 진행).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딥페이크 예방” 상시 성평등 교육 필요

광주여성가족재단 긴급 토론회...수사 전문성 제고 등 의견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상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은 전국적 이슈로 부상한 ‘딥페이크’ 사태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지난 5일 광주시민마루에서 진행했다. 딥러닝(Deep Learning)과 거짓(Fake)의 합성어인 ‘딥페이크’는 AI 기술로 제작돼 진위 구별이 어려운 가짜 이미지나 영상을 일컫는다.

광주YWCA,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단체협의회와 공동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인 N번방 사태를 공론화했던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가 발제를 맡았다. 광주YWCA 통합상담지원센터 박혜진 전문상담원, 광주시교육청 성인식개선팀 김수연 장학사, 광주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 나현정 행정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나현정 행정관은 “최근 광주에서도 피해사례가 접수된 ‘딥페이크’ 문제는 광주경찰을 비롯해 전국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사

안”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제고해야 하며 성평등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교육도 상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는 박혜진 전문상담원은 “딥페이크 사진 및 디지털성폭력사건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 및 대상자 처벌이 강화돼야 사건 확대 및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좌장을 맡은 임수정 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딥페이크 가해자 처벌 기준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며 “갈수록 딥페이크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민관 모두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광주여성가족재단과 지역 여성계는 딥페이크 문제 해결을 위한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